

● 장애의 이해

1 장애의 이해

가. 장애의 정의

-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은 사회구성원이다.
- 장애인은 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에 의한 어떤 차별이나 편견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 장애인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장애인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 자신의 문제이다.

● 장애란

- 한 사회가 어떠한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
-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개별 사회의 문화적 기대에 따라 다르며, 환경에 의해서도 변화될 수 있음(정영숙, 이현지, 2007)
-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사회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

● 장애의 개념 분류

손상(impairment)	무능력(disability)	사회적불리(handicap)
생물학적 장애로 기능의 손상을 가져다 준 영구적 또는 일시적 병리적 상태 (예. 다리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적, 신체적 손상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 대한 개인의 적응 결과 (예. 다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걸어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손상이나 무능력으로 인해 독립적 생활, 교육, 취직 등이 저해되고 있는 상태 (예. 다리가 없어서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나. 장애의 유형

- 관련 법안(「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기본 입법 목적에 따라 장애 유형 분류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장애인복지법」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 및 생활환경 개선 전반을 다루는 것으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를 가진 영·유아, 아동, 청년, 성인의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률에 따른 장애의 유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구분	유형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장애인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정신지체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장애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내부 기관 장애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기능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정신적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 장애인 복지 서비스 : 장애인복지법에서 제시하는 장애 유형과 등급을 기준으로 실행

다. 장애에 대한 에티켓

● 올바른 표현법

(1) 일상생활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 : '장애인' vs '장애자' vs '장애우'

장애인	장애우	장애자
장애가 있는 사람 법적 용어이므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중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	장애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라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를 가진 친구' 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친구' 라는 의미로 연령대가 다양한 장애인에게 장애우라는 호칭은 무리가 있음	접미사 자(者)가 어감 상 비하하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2) 장애인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가리킬 때 비장애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적절한 표현임.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정상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나 정상인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음.

〈이렇게 표현하자〉

적절하지 않은 표현	적절한 표현
정상인	비장애인,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장애자, 병신, 불구	장애인, 장애를 가진 사람
지체부자유자	지체장애인
앉은뱅이, 절름발이, 절뚝발이	하반신장애를 가진 사람
난쟁이	왜소증이 있는 사람
곰배팔이, 외팔이	팔 장애를 가진 사람
장님, 소경, 봉사, 애꾸, 외눈박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
병어리	언어장애인,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
백치, 정신박약가, 정박아	지적장애인,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미치광이, 정신병자, 미친 사람	정신장애인,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
곱추, 곱사등이	척추장애인, 척추에 장애가 있는 사람
문둥이	한센씨병이 있는 사람

● 장애유형별 이해와 에티켓

가) 시각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시각장애의 유형

유형	분류기준
맹 (blindness)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자, 또는 학습에 시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촉각이나 청각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여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자
저시력 (low vision)	좋은 쪽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상 0.3이하인 자, 또는 저시력 기구(광학기구와 비광학 기구), 시각적 환경이나 방법의 수정 및 개선을 통하여 시각적 과제를 학습할 수 있는 자

Q 시각장애인은 전혀 볼 수 없나요?

A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시각장애인 중에서 전혀 시력이 없는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 할 수 있는 감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시각 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Q 시각장애인도 TV나 영화를 볼 수 있나요?

A 시각장애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나 텔레비전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감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 없이도 TV, 영화, 연극 등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 대화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가 조용히 중요한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됩니다.

Q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에는 가능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세요. 예를 들어, “여기, 저기” 등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오른쪽으로 1m쯤 간 다음, 왼쪽으로 2m가세요.” 등으로 숫자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한 도로상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며, 특히 도로의 상태나 도로에 설치된 것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Q 시각장애인을 안내 보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안내자의 팔을 시각장애인이 잡을 수 있도록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주어 팔꿈치 부분이나 팔꿈치 위를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고 있을 때에는 갑자기 돌거나 움직이는 행동은 피해주세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접근할 때에는 우선 멈춰 서서 상황을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야 할 때에는, 팔을 잡은 채로 같이 돌지 말고 시각장애인에게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팔을 놓으라고 한 다음 앞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팔을 잡아주세요. 문이 닫힌 곳에 있을 때에는 돕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거나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에 갖다 대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열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안으로 안내를 해주세요. 회전문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Q 시각장애인도 외모에 관심을 가지나요?

A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가꾸는데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듯이, 시각장애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이 서로 다른 색상의 양말을 신었거나, 옷이나 얼굴 등 그의 외모에 문제가 있을 시 즉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시각장애인과 식사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테이블 위에 촛불, 꽃병 같은 것은 시각장애인으로 부터 멀리 놓는 것이 좋습니다. 메뉴를 결정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에게 다양한 메뉴와 가격을 읽어주도록 합니다. 먹기 어려운 음식을 먹는 것을 도와주려면 주문을 하기 전에 미리 시각장애인에게 말을 해주어 메뉴 선택의 폭을 넓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이 도착하면 시각장애인에게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수저가 있는 곳과 무슨 음식이 담겨져 있는지를 작은 소리를 설명해주고, 음식의 위치는 시계방향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먹을 수 없는 장식물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도록 하세요. 음료가 뜨거운지 차가운지에 대해 미리 말해주고, 과일 등과 같이 껍질을 제거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미리 껍질을 벗겨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요청에 따라서는 별도의 접시에 모아 담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를 사용하거나 안내견과 보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어디든지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시각장애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알아야 안내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견은 단지 위험한 곳이나 장애물을 피하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안내견의 안내를 받아서 이동할 때는 서서 구경하지 말고, 방해가 되지 않게 잠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흰지팡이는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용기구로서 흰 지팡이의 뾰족한 끝으로 땅을 더듬으면서 걷고 찾고 장애물을 탐지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이용할 때 천천히 불완전하게 이동하지만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커다란 어려움이 보일 때 까지는 방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 서서 당신의 팔을 내주어 안내보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도록 합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 장애인의 눈과 다름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든 손을 만지거나, 잡아끌거나, 밀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나) 청각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청각장애의 유형

유형	분류기준
농(Deaf)	청각기구(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순음청력검사 결과 90dB이상인 자 또는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청각을 통한 언어 정보교환이 어려운 자
난청 (Hard of hearing)	청각기구(보청기,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쪽 귀의 청력 손실이 순음청력검사 결과 60-80dB 이상인 자 또는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청각을 통한 언어적 정보교환이 가능한 경우

Q 청각장애인은 말을 하지 못하나요?

A 듣지 못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손실로 말미암아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말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청각 장애학생들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언어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Q 청각장애인도 보청기를 사용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나요?

A 보청기를 사용해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줄 뿐, 어떤 것도 청력 손실을 완전히 보완해 줄 수는 없습니다.

Q 청각장애인과 글로 어떻게 의사소통할 수 있나요?

A 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구화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주소, 열차 시간, 의약품명 등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글뿐 아니라 지도, 도표, 그림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이용 가능합니다.

Q 청각장애인은 대화하는 것을 꺼리지 않나요?

A 청각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청각장애인 중에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에게 말을 하기 전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가 입모양을 읽을 수 있도록, 앞에 서서 직접 바라보며 명확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적당히 크고 일정한 소리로 약간 느린 속도로 분명하고 바른 입모양으로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끝을 흐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 문장을 말하고 약간 쉬 후 다음 문장을 말하도록 합니다.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 얼마간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하도록 하고, 이야기 도중 다른 상황(초인종이나 전화벨이 울린 경우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설명해주도록 합니다.

대화 시 청각장애인, 특히 구화법을 모르는 청각장애인에게 몸짓 및 얼굴 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색안경, 커다란 챙 모자는 전체 얼굴 특히 눈을 가릴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장된 얼굴 표정과 몸동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청각장애인과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몇 마디 말을 하며 여전히 경청하고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고, 장애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듣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 지체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지체장애는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의 분류

유형	분류기준
정형외과적 장애	골형성주전증, 선천성고관절탈구, 내반슬, 외반슬, 척추측만, 척추후만, 형태 이상 등 골격구조 즉, 뼈, 관절, 팔, 다리 및 근육과 관련된 장애로 체간지지 및 운동 동작이 곤란하거나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자
신경학적 장애	뇌성마비, 이분척추, 외상성 뇌손상, 소아마비, 진행성 근위축증, 척추손상 등 중추신경계의 손상으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움직이고, 사용하고, 느끼며, 조절하는 능력의 제한으로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이 요구되는 자

Q 계단과 턱에서 지체장애인에게 어떻게 도울 수 있나요?

A 계단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뒤로 뉘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하여 밀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휠체어 사용자에게 앞으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뒤로 내려오는 것이 좋은지 물어본 다음 어느 쪽으로 내려오든지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도록 한 상태로 내려오면 됩니다. 이때 휠체어 사용자의 상체가 휠체어 등받이에 붙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보행 장애인의 계단 이용을 도와줄 때에는 옆으로 걸으면서 팔을 뻗어 장애인이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 큰 도움이 필요 할 경우는 팔로 장애인의 허리를 부축해주어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균형을 잃어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남의 도움 없이 계단을 이용하는 경우 내려올 때는 앞에서 올라갈 때는 뒤에서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비틀거리거나 넘어지려고 할 때 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Q 지체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사용할 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휠체어 사용자들은 휠체어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동휠체어는 차량에 싣도록 접을 수 있으며, 차량이나 휠체어 형태에 따라 휠체어를 차 뒤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거나 차 밖의 특수 장치에 싣기도 합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은 평상시에는 큰 휠체어나 모터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는 작은 휠체어를 사용한다. 휠체어 사용자 중에 남의 도움 없이 차에 타고 휠체어를 접어 실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장애인에게 알아 본 후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차가 있는 장애인들은 행사나 모임에 오고 갈 때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차가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체장애인이 레크리에이션을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이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거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물속에서 하는 활동은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쓸 수 없어도 가능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팔에 힘이 있고 휠체어를 조종할 수만 있으면 휠체어를 타고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을 위해 제작된 휠체어도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을 어떤 행사에 초대할 때는 가능하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은 교통편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며, 어떤 사람들은 피로를 막기 위해 그들의 활동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보통 비장애인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

Q 휠체어를 밀어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A 수동휠체어는 사용자가 손으로 바퀴를 밀어 움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로할 수
가 있다. 휠체어를 밀어줄 때는 휠체어 크기와 발판이 튀어나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옥외에서는 지형에 유의하고, 움푹 패인 곳이나 질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천
천히 밀어주고 장애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본 후 밀기 시작해야 한다

Q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대화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 A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대화할 때 편안한 위치를 잡아 앉아 눈높이를 맞춘
후, 상대방과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 있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
인과 너무 가까이 서있지 않도록 하며 키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서있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에 있는 경우 햇볕으로 인해 눈이 부실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해를
등지고 앉도록 하거나 더 그늘진 곳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합니다. 대화가 길어
지면 좌석에 앉도록 하고 의자나 앉을만한 곳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
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있든지 앉아있든지 간에 장애인과 마주보면서 이야
기하는 것입니다.

Q 지체장애인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A 지체장애인과 식사 시 음식점을 선택할 때는 식탁이나 의자의 배열이 널찍하게
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고 만약 음식점이 크다면 현관에서 멀지 않은 테이블에 앉
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장애인과 식사를 할 때에는 우선 어떤 좌석이 편리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돌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다
른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식탁의 앞쪽에 앉기를 좋아하고, 휠체어 장애인은
식탁 다리로 인한 방해받지 않는 중간 좌석을 기대어 놓을 수 있는 벽 가까이
에 앉는 것을 가장 편안해 합니다. 손과 팔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고기를 잘라 주거나 반찬의 배열을 편하
게 해주어 음식을 먹기 좋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적인 자
리에서 이러한 도움을 부탁하기가 쑥스러울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부탁하기 전에
도와주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의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서는
컵을 너무 가득 채우지 않도록 하고, 음료를 제공할 때는 빨대를 함께 제공하면
마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가 심한 경우는 식사 전부 혹은 일부
를 먹여주도록 합니다. 음식을 먹여주는 경우 장애인에게 음식을 모두 제공한 후
자신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대로 자신도 함께 먹으면서 음식을 먹여주도
록 합니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보다 식사시간이 더 오
래 걸리므로 장애인 보다 너무 일찍 식사가 끝나지 않도록 보조를 맞춰주는 것
이 좋습니다.

Q 지체장애인에게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 출입문에서는 장애인의 팔이나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출입문을 두 사람이 통과하기보다는 혼자 통과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문을 잡아줄 때는 사람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잡아주고, 문을 닫을 때는 장애인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것도 출입문을 잡아주는 것과 같은 요령으로 하면 됩니다. 장애인이 완전히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엘리베이터 밖에서 장애인을 도울 때는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버튼까지 손이 닿는지 물어보아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신 눌러주도록 합니다.

라) 지적장애(정신지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적장애의 분류

유형	분류기준
경증 (IQ 55-75정도)	지적장애의 85%이상이 이 범주에 속하며, 대개 학령기 이전엔 정상아동들과 구별하기 어렵다. 10대 후반기에 가면 초등학교 6학년 수준의 학습능력을 성취한다. 성인기에 가면, 약간의 배려만으로도, 독립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중등도 (IQ 35-55정도)	지적장애의 10%가 여기에 해당한다. 교육보다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의 훈련이 중요하다. 학습능력은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을 넘기가 어렵다. 성인기에 도달하면, 감독만 적절히 이루어지면, 기술이 필요 없는 작업 수행이 가능하다.
중증 (IQ 25-35정도)	지적장애의 3-4%가 여기에 속한다. 조기 아동기에 언어습득이 안되고, 학령기에 언어가 생기고 기본적인 자기위생관리를 배울 수 있다.
최중도 (IQ 20-25 이하)	지적장애의 1-2%가 여기에 속한다. 대개 신경학적 질병을 동반하며, 철저한 감독과 보호가 제공되는 환경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면, 감각운동의 장애가 호전되고, 언어와 자기위생을 배울 수 있다.

Q 지능지수(IQ)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지능지수(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인은 대부분 지능지수(IQ)가 낮습니다. 그러나 IQ라고 하는 것은 지적능력, 쉽게 말해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할 것인가를 미리 알아보는 데는 이용될 수는 있지만, 신체적 능력이나 정서, 감정, 창의력 등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IQ가 높다고 해서 운동도 잘 할 것이고, 노래도 잘 할 것이며, 예의범절도 깰 것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지능지수(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신지체에 대한 오해 중 가장 위험한 것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오해는 정신 이상 혹은 정신 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데에 비롯될 수도 있으나, 지적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데에 주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적장애는 정신 이상처럼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적장애는 정신 이상과 같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특수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이 가능한 교육적 대상입니다.

Q 지적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나요?

A 지적장애인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체적 능력이나 감정, 창의력, 도덕성 등도 반드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성적(性的)발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도덕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 성적 일탈 행동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다른 영역의 발달은 다소 지체되는 경향은 있으나 성적 발달만큼은 일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Q 지적장애는 유전되나요?

A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지적장애의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은 소수에 불과 합니다. 명백히 유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대체로 2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장애 발생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지적장애는 유전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오해이기도 합니다.

Q 지적장애에 대한 치료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우선 지적장애를 의학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정확히 알아내기도 힘들뿐 아니라 알아냈다 하더라도 지적장애를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 중 지적장애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부모들이 이곳 저곳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적장애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은 저절로 발달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도 발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달 초기에는 뇌기능이 미분화, 미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수록 그 발달 가능성도 그만큼 큼니다. 지능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Q 지적장애인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A 지적장애인도 똑같은 인격을 지닌 한 사람입니다. 이웃을 대하듯이 거리낌없이 먼저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면, 정신지체인 또한 친숙하고 반갑게 대할 것입니다. 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 이상한 눈빛으로 흘깃흘깃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또는 피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천천히 말하고, 또한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도록 합시다.

한자리에 오랫동안 우두커니 서있는 학생, 혼자서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학생이 있으면 다정한 표현으로 학생에게 신상을 물어보고,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그들이 가정이나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적장애인도 부족하나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능력에 맞게 단순화시키거나 세분하여 반복 연습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격려합시다.

마)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성 장애

• 정서·행동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 조치가 필요한 사람

-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자폐성장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폐성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용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Q 정서장애, 행동장애 그리고 자폐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정서 장애를 행동장애라고도 합니다. 학문적 관점에 따라서 '정서'와 '행동' 중 어느 것을 강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정서장애라는 말은 부적절한 행동에서부터 공포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정의를 보면, 아마도 당신 자신도 정서 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의 정서 장애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서장애는 남성이 여성보다 4~5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장애 중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자폐증입니다. 자폐아동은 마음을 열지 않고 언제나 혼자이기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두 살 때 발견되어 평생 계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자폐성과 정신 질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언뜻 보기에는 자폐증과 정신분열증이 비슷한 점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오해입니다. 자폐증과 정신 분열증은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폐증은 출생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정신 분열증은 정상적인 발달 중에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또한 자폐아동은 변화를 싫어하고 동일성을 고집하지만, 정신 분열 아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정신 분열 아동은 가끔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폐아동은 그렇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릅니다. 따라서 자폐증을 정신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폐증	정신분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시부터 장애를 가짐 ■ 동일성 고집 ■ 환각을 나타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적은 발달 중에 발생 ■ 동일성을 고집하지 않음 ■ 환각을 경험함

Q 자폐증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A 자폐학생의 거의 절반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머지 절반도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화를 매우 싫어하는, 동일성(同一性)을 고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 갔던 길 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맨손으로 혹은 병뚜껑 따위의 하찮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돌리는 행동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거나, 머리카락을 뽑기도 하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는 등 위험한 자해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편 자폐학생들 가운데는 오래 전의 것이나 과거의 특정한 날을 정확히 기억해 내는 등 기계적인 암기력이 뛰어난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자폐학생은 처음 들은 곡을 곧바로 정확히 연주하는 등 놀랄만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Q 자폐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A 흔히 맞벌이 가정에서 자폐아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폐학생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말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비교적 아이들과 대화 시간이 적은 맞벌이 가정에서 그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폐증과 가정환경과의 상관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폐증이 유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자폐증이 유전이라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보다는 환경의 문제나 중추신경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폐증은 생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선천적 장애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천적 장애라는 말이 곧 유전적 장애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폐증의 발생률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폐증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 4~5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 이상의 특성들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 정도가 지나쳐 적절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바) 학습장애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Q 공부를 못하면 모두 학습장애인가요?

A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모두가 학습장애는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지능이 떨어지는 학생, 시각에 문제가 있는 학생, 청각에 문제가 있는 학생, 혹은 사회·경제적 환경이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각각 정신 지체학생, 시각장애 학생, 청각장애학생, 문화실조학생 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무턱대고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학습장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Q 지능이 낮으면 학습장애인가요?

A 학습장애아를 규정하는 몇 가지 기준들 중 지적 능력은 보통 혹은 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학업성취가 크게 떨어지는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능은 괜찮은데, 혹은 다른 과목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과목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과목에만 현저하게 떨어지는 학생이 곧 학습장애입니다.

Q.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학습장애라는 말을 흔히 학습부진, 학업부진, 학습지체, 문화 실조 등의 개념과 혼동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습장애아는 엄밀한 장애의 한 분류로서 특수교육의 대상인 반면, 학습부진아 등의 개념은 일반 교육 내에서 다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장애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수학 등 특정 영역의 능력이 기대치에서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수학 장애, 쓰기 장애 등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과목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덧셈, 뺄셈만 유독 하지 못한다면 그 학생은 수학 학습장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학습장애를 판별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학습장애는 선천적인 기능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2) 학습장애는 기존의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 낮아 나타나는 학습장애는 정신 지체 영역에서 다루는 것이 더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 3)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기대치와 실제로 얻은 성적이 크게 차이가 있을 때에만 학습장애로 간주합니다.
- 4) 당연한 논리지만, 학습장애아의 지능은 보통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한편 학습부진아는 주로 환경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혹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여 공부할 기회가 없어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므로 학습부진아는 특수교육의 대상이 아닌 일반 교육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한 학습부진아는 학습장애 학생처럼 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습장애학생은 학습부진과는 달리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의 집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6을 9로 읽는 등 시지각(視知覺)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눈과 손이 함께 하지 못하여 글씨를 쓰지 못하거나 단추를 잠그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지원 가이드북